

# 북한국보 4점등 고구려유물 12월6일부터 서울서 특별전

중앙일보와 (주)SBS, 민속화해협력남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가 공동 주최하고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재일본조선력사고고학협회'가 특별추천하는 '특별기획전 고구려' 부제: 평양에서 온 고분벽화와 유물'가 12월 6일 코엑스 3층 특별



세금 연꽃을 두른 동근 대좌 위에 불꽃무늬의 광배를 한 북한의 국보 금동광삼존불(높이 32cm). 이 불상은 평양의 고구려 왕궁터에서 출토됐다.

자 명문이 새겨져 있고 형상 수법도 비슷해 같은해에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은 주조한 다음 굳기 전에 예서체로 명문을 새기고 금동일광삼존불은 굳은 다음에 해서체로 새긴 것이 좀 달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평양의 고구려 왕궁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금동일광삼존불은 세걸 연꽃을 두른 동근 받침대 위에 불꽃무늬의 광배를 지고 서 있는데 얼굴표정과 손가짐, 옷주름, 광배의 무늬 등이 모두 연가7년명 금동여래입상과 같이 형상된 불상이다.

세 부처는 모두 속을 둥글게 하고 거기에 철심을 세웠으며 불신과 광배, 받침대를 다 따로 주조해 한데 붙였다. 또 본존불의 가름한 얼굴과 밖으로 보이게 한 넓은 손바닥, 가슴 아래에서 양옆으로 뻗어내린 옷자락과 그 사이에 생긴 옷주름 등은 이 시기 거의 모든 삼존불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주조 기법을 띠고 있다.

이외에도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에 위치한 5세기 고구려 사찰로 그동안 절터만 남아있다가 최근 복원된 정릉사를 1백분의 1 비율로 축소한 모형도 선보인다. 동경 왕릉 앞에 세운 정릉사는 부지가 약 3만m에 이르는 큰 사찰로서 주위를 모두 회랑으로 둘러 막았으

## 금동일광삼존불·정릉사 모형 등 볼거리

전시장에서 개막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북측의 국보 4점중 불교유물은 열강7년(551년) 금동광배(사진 본지 396호 1면)에 높이 32cm인 연가7년(539년)명 금동일광삼존불이 있다.

특히 하나의 대형 광배면에 삼존불(三尊佛)을 배치했다는 의미의 금동일광삼존불은 광배 뒷면에 국립중앙 박물관이 소장한 연가(延嘉)7년명 금동여래입상(국보119호·경남 의령 출토)과 똑같은 내용의 46

며 남북 132cm, 동서 223m에서 18개의 집터, 10개의 회랑터가 발굴된 바 있다.

볼자라면 평양시 대성구역에서 출토된 불교경전 두권과 숫기와막새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승환 민화협 사무처장은 "전시회에 맞춰 북한 학자 4-5명을 초청할 예정"이라며 "남북의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분석과 토론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 한지에 살린 파괴 너머의 창조

온몸에 상처 팔·발만남은 부처등 태국불상·앙코르와트 앵글에 담아

사진작가 이정진씨 '2002 붓다展' 열어



을 닮혀주고 기개가 가지는 표현의 고있다. 가지에서는 자연의 리듬이 살아 숨 쉬는 생동감마저 느껴진다. 이번 전 특히 앙코르와트 고목의 뿌리와

◇황폐화된 태국의 불상을 한자위에 광광 유제를 발라 인 화한 이정진씨의 사진 작품 '2002 붓다'



◇좋은 벗 풍경소리의 15번째 창작 찬불동요 앨범

좋은 벗 풍경소리의 15번째 창작 찬불동요 작품집이 나왔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 곡 '눈 내리는 날'을 비롯해 '부처님 마음', '새벽예불 II', '부처님 탄생', '부처님 안아주세요', '우리는 3중주', '부처님 찬가', '남에게

풍경소리 찬불동요 15집 '부처님마음' 등 11곡 수립

려요', '눈발매', '가을' 등 11곡이 수록돼 있다. 또 음반 말미에는 각종 법회나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록곡 전부에 대한 반주 음반도 실어 놓았다.

정유탁씨는 "이번 앨범은 온몸 새하얀 들판 위를 풍미의 마음으로 신나게 뛰노는 풍경경을 주로 담았다"며 "한국 한국 불자는 노랫소리가 소복하게 쌓여가는 눈송이처럼 부처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지길 바란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02)723-9836 www.budson.or.kr

김주일 기자

## 통일서에대전 대통령상 변형문씨

12월13일~22일까지 예술의전당서 전시회



◇대상을 받은 변형문씨의 한서 전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범타스님)가 후원하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청정국토만들기 운동본부, 통일문화연대, 종교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통일서예

대전'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에 변형문 씨(한국 서예 협회 부이사장)가 선정됐다. 변씨의 작품 '南北交流 異國運 天地合德 樂民心'은 남북이 서로 교류하니 국운이 창성하고 천지가 덕을 합하니 민심이 즐겁다는 내용의 한시 전서로 결구의 창의력이 뛰어나고 조형미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통일서예대전 운영위원회는 통일서예대전 국화의장상에 이철산(한문부반, 국무총리상에 김정순(한글 부반) 등 총 572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선정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서 1000여점의 공모를 받아 19명의 심사위원(위원장 정도준)을 선정했다"며 "2단계에서 걸쳐 엄정한 심사를 했으며 최종과정에서 수상자 20인 모두 현장화회를 통해 겸증찰자를 거쳤다"고 밝혔다. 수상작품은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예관에서 북한의 서예 작품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 19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입산 출가 후 즐겁게 참선 수행에 정진해온 한 남자의 구수하면서도 진솔한 수행이야기!!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수행, 가슴을 저미는 애뜻한 사연, 세속을 떠난 여유, 피식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 우리 삶을 일깨우는 작은 울림

땀과 땀에 질들었다가 양념 하나 안된 자연식을 맛보았을 때의 느낌이 이렇까. 복잡한 사회에서 숨들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청량제가 될만한 책. 읽다보면 문득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선 듯한 느낌에 빠져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대한매일신문

국판/230쪽/7,500원

이제 나도 한자 전문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재미있게, 쉽게 익히도록 이야기식으로 꾸며고 있는 책. 글자마다 그 글자가 본시 어떤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나 하는 어원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말을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1,800여 한자를 중심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신용태 저/신국판/554쪽/17,000원

한 권으로 끝내는 한문 문법과 해석! 알기 쉬운 한문 해석법  
심재동 지음/신국판/383쪽/12,000원

은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다산법원빌딩 3층 전화 02)872-7181-5 (출판부) 928-8301



### 선방 이야기

토굴土窟이야기  
종인 스님 글

### 티베트 밀교 무상 심요법문

【無上 心要法門】

### 원리를 알면 漢字를 쉽게 깨우칠 수 있다!

한자는 대부분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이거나 추상적인 지사문자, 그리고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나 글자의 어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확장하여 다른 글자의 뜻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티베트 밀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수인법문>에 대한 해설!

심요법문이란 마음 수행의 길에서 항상 수지하면서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수 있는 필참한 몇 구절의 요약된 법문을 말한다. <대수인법문>은 대승의 교의를 통달하여 중과에 이르는 길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심요법문이다. 이 원문을 자주 독송하고 심오로 삼아 호지한다면 호트리지기 쉬운 일상생활에서 흔들림 없고 굳건한 수행심과 신앙심을 지니게 될 것이다.

박건주 역해/국판양장/205쪽/8,000원

티베트 밀교 무상 심요법문

은주사